

① 정부출연연 연구원 정년 단축

신진과학자는 기피하고 중견 현직연구원은 떠나고

글 | 전익진 _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sciencejun@yahoo.co.kr

우리 나라 정부 출연연의 연구 전략은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모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아울러 연구결과가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주기적인 연구개발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KAIST 등 일부 대학에서는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엄격한 자체 평가와 경쟁적 체계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조만간에 전체 대학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구원도 연구 능력 향상과 이를 위한 경영방식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변혁기에 서 있는 것이다.

65→61세 정년단축, 연구원 이직 단초 제공

정부는 IMF사태 이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1998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룬 문제가 정부 출연연구소의 경영혁신과제였다. 1999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의 지침에 따라 공공분야의 다양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출연(연)의 인력 감축, 정년 조정, 명예 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도록 촉구하였다. 당시 5개 연구회는 책임연구원은 65세에서 61세로, 선임연구원은 60세에서 58세로 정년을 단축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PBS 제도를 전 출연연구소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년 단축은 상대적으로 학력배경과 연구 활동 등 업무 내용이 비슷한 대학교수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별이 되고 있어 신진 과학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퇴직연금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연구원을 기피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연구 능력 향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초 · 중등 교원의 정년도 비슷한 이유로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1998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보고서는 나이 많은 교원 1명 대신 젊은 교원 3명을 채용할 수 있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로 교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교원의 사기

저하는 헌신과 봉사라는 교직에 대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교원을 상대적으로 무능한 집단으로 몰아가서 교육현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수나 연구원이나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내부 경쟁 절차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데 비하여 61세로 단축된 연구원의 정년은 신진과학자들이 연구원을 기피하고 유능한 중견 연구원들이 대학으로 이직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출연연에서는 유능한 연구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석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자문연구위원이라는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다. 석좌연구원의 경우 아주 우수한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세 정년 이후 2년씩 심사과정을 거쳐 연장하고 있지만 급여가 상당 부분 감액되고 있어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현역에서 물러나는 느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퇴직예정자의 60% 이상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비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연구 생산성과 연구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연구원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관한 문제도 일률적인 정년 단축제도보다 다양하고 엄격한 평가에 의한 적격의 연구자에 한하여 정년을 보장하는 자체 검증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환경과 보건복지의 증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나이에 잘 훈련된 연구 인력에게 은퇴를 강요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직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이 길어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우수한 연구자의 공급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자의 정년을 최소한 대학교수와 같은 나이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㉔



글쓴이는 금속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기계연구원 창원 부원장,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실장,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